

민경구 교수의 출애굽, 구원 이야기 9강 다각도로 보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하나의 십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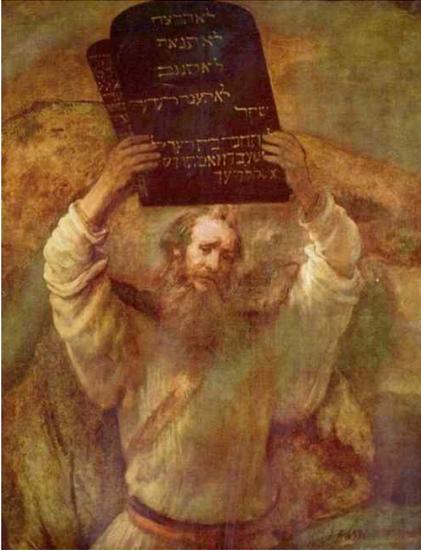
한눈으로 보기

십계명. 교회에 출석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십계명이라는 명칭을 알고 있다. 심지어 교회에서 그것은 주기도문 사도신경과 유사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 한글 성서『개역개정』의 앞 표지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수록되었고 뒤표지에는 십계명이 수록되었기 때문이다. 그 십계명은 일반적으로 출애굽기 20장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과 대단히 유사하지만, 상이한 관점을 제시한다. 즉, 다양한 십계명은 다양한 목소리를 갖고 있다.

시작하기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외울 때 가장 먼저 외우도록 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는 십계명이다. 게다가 그것은 종교개혁 이후 1643-1647년까지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제39-81문항), 그것은 십계명이 예나 지금이나 대단히 중요했음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동일한 출애굽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와 가톨릭의 십계명 이해는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두 가지 차이점이 확인된다. 한 가지는 개신교에서 제2계명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가톨릭 십계명에서는 제1계명 안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개신교의 제10계명이 가톨릭에서는 두 가지 계명으로 나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가톨릭의 이와 같은 십계명 이해는 중심점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계명은 제1-3계명인 반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은 제4-10계명에서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둘에 대한 논의는 잠시 접고, 개신교 십계명 이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Rembrandt Harmensz - Moses breaking the Tablets of the Law (1659년)

십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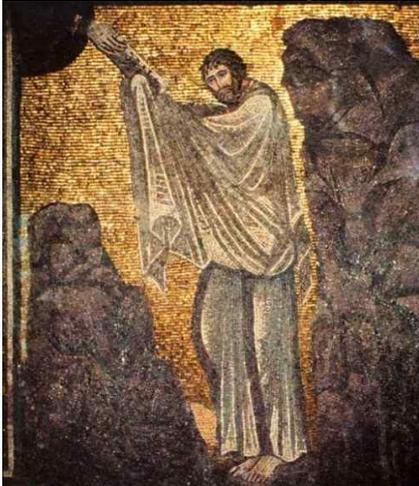
십계명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율법이다. 그것은 실제로 성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법이기도 하다. 동시에 십계명은 기독교인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보편적 규범을 담고 있다.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계명들은 범 인류에게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십계명을 담고 있는 세 본문(출 20; 34; 신 5)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본문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율법 정신 -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은 열 가지 계명을 담고 있는 본문인 동시에, 율법이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첫 번째 본문이다. 출애굽기 이전에는 율법이 암시적으로 등장하고 있을 뿐이다.

‘십계명’이라는 명칭이 성서에 등장할까? 히브리 성서 출애굽기 34:28에 따르면 본래 “10가지 말씀”(아세렛 하데바림)이라고 기록되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아마도 “이 모든 말씀”(콜 하데바림 하엘레 출 20:1)으로 이해된다. 물론 출애굽기 20:1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이후의 것들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십계명이라는 명칭이 성서에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한국 교회에서 “십계명”이라는 용어가 익숙하므로 여기에서는 십계명이라 칭하도록 하겠다.

율법에는 ‘언약법전’(출 20:22-23장), ‘제사법’ 그리고 ‘성결법전’(레 17-26장)과 같은 다양한 법 모음집이 등장한다. 그러한 법들과 십계명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손수 기록한 것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이다.



Mose erhält die Zehn Gebote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크리스천에게 가장 익숙한 계명이다. 한글로 번역된 여러 성서의 뒷면에 개별적으로 수록되었을 뿐 아니라, 주일학교를 다녔다면 그것을 외우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의 정신은 상당히 왜곡(歪曲)되어 있다.

그러한 이유는 중 하나는 신약의 율법 이해를 무분별하게 수용했기 때문이다.

로마서 3:1과 갈라디아서 2:3에는 할례의 행위가 언급되었다. 이 본문들은 ‘할례의 행위’를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것은 언제부터인지, ‘율법을 폄하하고, 은혜를 강조’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하지만 이것을 율법의 본래 정신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즉, ‘율법의 본래 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는 자문해야 한다.

둘째로, 율법을 암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을 뿐, 법의 정신이 망각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십계명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우리가 서문(序文)을 다루지 않고 본문 자체에만 집중한다면 십계명의 정신을 알지 못할 것이다.

운동주의 시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시는 바로 “서시(序詩)”이다. 이것이 “서시”라 불리는 이유는 시문집의 가장 첫머리에 위치하기 때문인데, 시문집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시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십계명의 정신을 담고 있는 부분은 바로 계명 앞에 있는 ‘서문’이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가장 유사한 것은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인데, 이 두 본문에는 동일한 서문이 기록되었다.

이 서문에는 십계명의 정신이 기록되었다. 그것에 따르면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호세티카 메에레쯔 미쯔라임)”는 것이 완료형태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형태는 이미 종결된 사건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 십계명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에게 주어졌다. 이와 같은 언급은 애굽에서 고된 종살이로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모습을 연상시킨다(출 1-2장). 십계명이 주어진 시점을 관찰해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십계명이 전달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주어졌다. 출애굽기 6:6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건을 “구원”과 결부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계명은 “구원/속량”받은 자에게 주어진 것임을 성서는 증언한다.

십계명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으로 계명을 상세하게 나열하기보다는 인간의 행동 환경에 대해 진술한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국가가 아직 형성되기 이전에 주어진 것으로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은 공동체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즉,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기본적으로 구원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세부적이지 않으며, 인간으로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것만을 언급한다. 그러한 사상은 십계명에 종종 “목적어”가 누락되었다는 것에서도 관찰된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는 특정한 목적어가 빠짐으로써 모든 대상에 적용될 수 있다. 자유인이나, 종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고대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자유인과 종/노예에게 동등한 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율법의 목적은 인간의 행동범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행동 지침을 담고 있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의 계명을 다루기 전에 우리는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출애굽기 34장의 기록에 따르면 다시 쓰여지는 십계명이 등장하는데, 마치 하나님은 모세가 깨뜨린 십계명을 그대로 기록한 것처럼 이해된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모세가 십계명을 깨뜨린 사건과 결부된다.

십계명을 깨뜨린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한다. 모세는 자신이 시내산에 올라가있는 동안에 산 아래 있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출 32:7-8). 심지어 그들은 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으로 부르고 있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했고(출 32:10),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모세는 중재자로 등장한다(출 32:11-14).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글자가 새겨진 판을 가지고 내려왔고, 산 아래 광명을 보고는 던져 깨뜨리고 만다(출 32:19).

여기에서 질문되어야 할 것은, 과연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된 십계명은 처음에 기록되었던 것들과 동일한 것일까?’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4:1에는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라고 진술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34:28에는 ‘기록을 마쳤다’는 선언이 나타나므로, 출애굽기 34:1-28에 서술된 성구에는 아마도 열 가지 계명이 등장하리라 추측된다. 따라서 우리는 계명들을 세어볼 필요가 있다.

계명	절	내 용
서문	6-7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1	14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2	17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3	18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빱월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빱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4	19-20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족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 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 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5	21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6	22-23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7	5a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8	5b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9	26a	네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10	6b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위의 계명들은 출애굽기 34장을 10가지 계명들로 나눈 것이다. 학자들은 앞에 언급된 십계명을 윤리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 구별한다. 무엇보다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된 계명은 제사와 관련된 특징을 보이므로 제의 십계명(Kultischer Dekalog) 혹은 십이계명(Dodekalog)으로 불린다. 그렇다면 여기 기록된 십계명/ 십이계명은 처음 기록된 것과 동일한가? 제의 십계명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1-2계명과 5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십계명(1-2, 4계명)과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된다. 하지만 그 외의 윤리적 십계명이 출애굽기 34장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출애굽기 34:1에 기록된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출애굽기 34:1은 문자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 이미 내용에서 파악된 것처럼, 그것은 출애굽기 20장과 연결된 십계명이 아니라, 독자적인 십계명으로 해석되어야 한다.